

한일미래포럼 활동 보고서

역사교육팀 최율리

한일미래포럼은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2박3일 간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에 대해 의논 및 토론하는 사회문화포럼이다. 마지막 날에는 토의한 내용을 모든 팀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일 혼혈로서 원래부터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번 포럼 공고를 보고 망설임없이 지원하였다. 현재 한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토론 주제로 '한일 역사교육의 차이'를 골랐고, 역사교육팀에 배정되었다. 여러 개의 토론 주제 중에서 역사를 고른 이유는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세한 내용이나 이슈를 잘 모르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져, 이번 기회에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만 교육받아온 나이기에 일본의 교육은 어떠한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포럼 1 일차(2019.12.26)]



(팀 첫 토의 사진)

2019년 12월 26일 오사카에 도착하여 포럼 참가자들을 만났다. 가볍게 개회식과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마치고 팀끼리 모여서 첫 토의를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준비해온 자료나 의견을 팀에서 공유한 뒤에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었다. 나는 전반적으로 왜 역사가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독일의 선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팀의 facilitator 를 맡아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모두의 짧은 발표가 끝난 뒤에 나는 더 의논할 주제를 던져서 토의가 끊기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소극적인 친구가 더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더 이끌어내려고 했다. 처음에 아무래도 주제가 '역사'라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모두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존중해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덕분에 나도 편안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고, 일본 학생들이 역사에 아예 무지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며 오해도 풀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자료 중 하나는 교사를 꿈꾸는 일본인 팀원이 가져온 역사 교과서였다. 직접 그 내용을 읽어보고 한국교과서와 비교해본 결과, 있는 사실을 없었다고 하진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일본교과서에서는 달랑 4 줄로

축약 되어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다. 팀끼리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마지막 날에 있을 발표의 큰 틀과 흐름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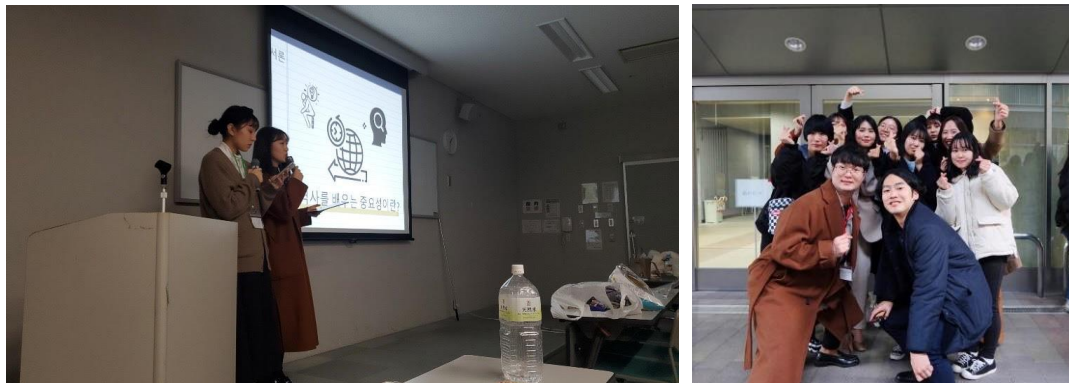
[포럼 2 일차(2019.12.27)]



(발표 준비 & 단체사진)

포럼 둘째 날에는 오전 9 시에 만나 역할분담을 하고 본격적인 발표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발표자를 맡아 다른 발표자와 함께 구체적인 발표 개요를 짜고 조사 담당 팀원에게 자료조사를 부탁했다. 자료가 모이면 이는 ppt 로 제작되었다. 한글과 일어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발표였기에 나는 통역자를 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개요를 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인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료를 쓸지 자료조사팀과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발표자끼리 멘트를 다듬고 합을 맞춰보았다. 한국어 발표와 일본어 발표 내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번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나는 일본어 대본을 보며 한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 대본도 조금씩 같이 수정하였다. 거의 하루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발표였기에 시간적으로 빠듯했지만 우리 팀 모두가 즐겁게 열심히 임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가끔 의견이 대립되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갔다. 개인적으로 나는 둘째 날이 힘들어도 굉장히 즐거웠다. 한일 문제에 관해서 한일학생들이 모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가슴 설레게 만들었다. 오후 7 시가 넘어서 우리 팀은 어느정도 준비를 끝내고 발표 리허설만 남겨둔 채 저녁 회식을 했다.

[포럼 3 일차 (2019.12.28)]



(팀 발표 & 단체사진)

발표 당일 아침에 발표자들끼리 일찍 모여서 짧은 발표 리허설을 진행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가며 호흡을 맞춰보고 발표 시간도 잰다. 본 발표의 서론에서는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한일 역사 교육의 공통된 비슷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 인식에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쪽수의 양과 서술에 있어서의 차이도 비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역사교육의 강·약점을 분석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런 역사 인식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약 40 분의 발표를 마친 후 30 분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주었다. 덕분에 우리 팀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견이나 생각들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역사와 역사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공부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국, 일본 친구들과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2 박 3 일동안 토의했다는 것은 내게 있어 무척 특별한 경험이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포럼이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어서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